

##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미사 30분 전 공동체 기도(묵주 기도, 성체 조배)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설날 위령 미사  
1월 19일(일) - 연미사 미리 미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부님 일정  
1) 1월 20일(월) - 2월 7일(금): 한국 방문 및 휴가  
2) 1월 26일(일) 주일 미사 집전 : 이영준 스테파노 신부(이튼타운 한인 성당 주임)  
3) 2월 2일(일) 주일 미사 집전 : 김기현 모이세 신부(프린스턴 한인 성당 주임)
- 2019 교무금 완납  
교무금을 완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수희, 김광대, 김성문, 김성욱, 김성철, 김영두, 김영복, 김연자, 김재숙, 김희동, 박민수, 박영희, 송현배, 신용철, 안우풍, 오세환, 윤모니카, 이경실, 이상민, 이순덕, 임익철, 장석영, 장한민, 최만섭, 최미라, 최영숙, 황선동>
- 찬양, 치유 미사 <매월 셋째 주일>  
남부 뉴저지,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지역 연합 찬양, 치유 미사 일시 및 장소 : 1월 19일(일) 오후 4시, 체리힐 성당  
\*찬양, 미사, 안수 및 치유 예식, 친교
- 성가책 판매  
소 : \$25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김윤선 호노리나>

##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1) 글로리아 구역 : 1월 18일(토) 오후 7시에 장한민 엘리사벳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장한민 엘리사벳 자매님, 김영복 아스나타시아 자매님 주관)  
2) 제노베파 구역 : 1월 26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김성문 루카, 김정숙 이사벨라 가정 주관)

##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 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술을 앞 둔 김윤선 호노리나 자매님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청하며 글로리아 구역에서 생미사를 봉헌합니다.

## 알립니다!

-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사목회 구역입니다.
-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틸다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제노베파 구역입니다.

#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사목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낮 12시

###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나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드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소성당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사목회 : 추후 공지

#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49번 용기장이
제1독서	이사야서 42, 1-4. 6-7
화답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제2독서	사도행전 10, 34-3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 마태오 3, 13-17
봉헌성가	461번 엠마우스
성체성가	187번 천사의 양식
퇴장성가	6번 찬미 노래 부르며

# 오늘의 묵상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 일이었고, 죄를 씻는 것이 하느님을 만나는 일로 이해됩니다.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는 죄를 찾아내려 애씁니다. 고해소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되돌아보는 일은 꽤나 아픈 일입니다. 고백하건대, 지난 과오를 진정으로 뉘우쳐서 아프기보다 그 과오 때문에 부끄러운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더 아픕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의로움’을 이루는 일입니다. 예언자 시대부터 ‘의로움’은 하느님과 제대로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대개 계층 간에 벌어지는 갈등의 자리에서, 권력의 다름 안에 희생된 약자들의 자리에서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시고 집중하시는 곳은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이었습니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신앙인들이 일상에서 만나고 웃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되돌아봅니다. 의로움을 이루려고 만나는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죄를 씻기는 커녕 서로의 탓을 곱씹느라 죄 속에 허덕이는 피폐한 영혼들을 맞닥뜨리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끝은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사야서에 따르면 그 아들은 다른 이의 죄를 대신 짊어져도 말 한마디 없이 죽어 가는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다른 이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는 희생을 실천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서로에게 죄를 짊어지우는 일만큼은 줄여야겠습니다.

의로움은 특정한 상황에서 이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과 실천으로 실현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평범한 일상에서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자신을 비워 내고, 내어 주고, 참아 주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박병규 요한 보스코 신부)

# 우리들의 기도

##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주님 세례 축일 1월 12일	연중 제2주일 1월 19일	연중 제3주일 1월 26일
제1독서	하국일 암브로시오	황선동 스테파노	박영희 마틸다
제2독서	김재숙 제노베파	박민수 벨라도	
봉헌자	김경훈, 이문경	이매향, 김명숙	최만섭, 김명숙

# 우리들의 주일정성

<1월 5일(일)>

봉헌금	\$585.00
교무금	\$1,200.00
감사헌금	\$200.00
매일 미사책 판매금	\$5.00
<b>Total</b>	<b>\$1,990.00</b>

김희동(10-12), 이상민(10-12), 장한민(1-12)  
신부님